

2. 제2차 임원, 이사, 중앙 합동회의 및 달라스 지역 세미나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이오영) 에서는 제 2차 임원, 이사 확대 간부회의 및 세미나를 달라스 Omni Hotel에서 2월 22-24일 2박 3일 간 김석주 뉴욕 한인회장, 석균쇠 시카고 한인회장, 정미호 필라델피아 한인회장, 오용운 달라스 한인회장, 김영만 휴스턴 한인회장, 서영석 서남부 연합회장(전 LA한인회장), 오기택 중서부 연합회장, 이준성 서북미 연합회장, 김범중 중남부 연합회장, 정세권 전 워싱턴 한인회장, 김경곤 타코마 한인회장(변호사), 장종연 전 볼티모어 한인회장, 등의 대도시 회장과 임용근 전 총연회장(전 오레곤 주 상원의원), 신호범 현 워싱턴 주 상원 부의장, 신필영 전 총연회장, 박선근 전 총연회장(부시 대통령 자문위원), 정호영 전 가든 그로브 부시장, 김기홍 전 총연 이사장, 등 중진 인사들을 비롯하여 80여명의 총연 간부진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첫 날 22일(금) 저녁에는 이오영 회장의 환영 디너가 상견례를 겸하여 시내 Korea House 식당에서 있었으며, 23일(토) 7시부터 시작된 조찬 모임은 호텔에서 이 곳 달라스 지역의 5개 단체 (달라스 한인회, 경제인 협회, 상공인 협회, 식품 협회, 체육회) 장들이 총연 임원들의 달라스 방문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공동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식 후 9시부터 박현우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식은 오용운 달라스 회장의 환영사와 이오영 총회장과 이준성 이사장의 인사에 이어 양봉렬 휴스턴 총영사의 격려사와 신필영 고문의 축사로 이어졌다.

이오영 회장은 인사에서 '한인 동포 사회의 역량

을 결집하고, 주류 사회에 인정 받는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한인회의 위상이 제고되고, 지역 한인회와 총연의 중·횡적 관계 정립을 바탕으로 총연이 미주 50개주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기구로 확실하게 구심화 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총연은 분기별로 지역을 순회하며, 한인 사회의 중요 현안 문제를 타개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50개주 원근 각지에서 제2차 확대 간부회의에 참석해주신 회장들에게 심심한 감사와 지속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봉렬 총영사의 격려사 모습

10시부터 시작된 세미나는 신호범 워싱턴 주 상원 부의장이 '주류 사회 주역으로서의 총연의 역할'이란 제하에 자신의 어려웠던 소년 시절부터 오늘 이 있기까지의 파란 만장한 생애를 꿈과 노력으로 이룩한 산 경험을 소개하면서, 우리 한인 동포들이 하면 된다는 열의 아래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미주 총연이 구심점이 되어서 차세대들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며, 본인도 열심히 도울 것이라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 나갈 때, 참석자들 모두가

숙연한 모습으로 경청하며 감명을 받았다.



신호범 상원의원의 연설모습

달라스 카운티의 Bob Drieger트 공화당 의장은 '소수 민족의 정치 참여'란 제하에 자신이 수십년간 정계에 입신 봉사해 온 경험을 이야기하며, 한인들의 주류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한인들이 자신의 선거를 많이 도와 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도 함께 하였다.

이어서 임용근 전 오레곤 주 상원의원(전 총연회장)은 '한반도 통일과 미주 동포들의 역할'이란 주제로 우리 조국의 통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통일 정책의 변화와 오늘의 미·북 관계와 한미 관계의 미묘한 현실을 소상히 밝히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한인 동포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하였다. 세미나를 마친 직후, 참가자들의 기념 촬영을 끝으로 오전 행사를 마쳤다.

양봉렬 휴스턴 총영사의 초청으로 가진 오찬 행사에서는, 중남부 지역 한인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이번 행사 개최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양봉렬 휴스턴 총영사에게 감사패를, 좋은 이웃 만들기 캠페인의 공로로 박선근 전 총연 회

장에게 공로 패를 증정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오찬 행사를 마친 후 오후 1시부터 5개 중요 분과 위원회 별로 나누어 토의한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 상정시켜, 토의 끝에 의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처음으로 실시한 6개 분과 별 토의는 열띤 분위기로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분과에서 결정된 사항을 분과 위원장이 본 회의에 발표하고, 이오영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2시간 30여 분에 걸친 본 회의에 분과에서 결정된 안건이 상정되어 진지한 토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6개 사항을 결의하는 등 성숙된 총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재외동포법」 대책회의에서

결의문

1. 미 주류 사회진입을 위하여.

우리는 미주 한인 동포들의 정치 역량을 결집하고, 효과적인 미 주류 사회 진출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미주 한인 지도자 회의(Korean American Leadership Conference)를 연차적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2002년 5월 17-18일 워싱턴 DC에서 갖기로 한다.

2. 재외동포법 개정에 관하여.

우리는 법정 기일 내에 (2003년 말까지) 혈통주의에 입각해서 재외 한인 동포 모두에게 평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것을 고국 정부 및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3.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에 관하여.

우리는 이민 100주년 기념 행사와 사업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본 행사의 성공을 위해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며, 기존의 100주년 기념 사업회와는 사안별로 협조한다.

단, 향후 이민 100년 대계의 청사진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둔다.

4. 한반도 평화 통일 기여 방안에 관하여.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미주 총연 산하에 '한반도 통일정책 연구위원회'를 회장 임기와 관계없이 상설 기구로 신설한다.

5. Network 구축에 관하여

우리는 총연 산하 50개 주 180여 지역 한인회와 Network를 구축하여, 200만 미주 동포들의 역량을 결집한다.

6. 재외동포센터 건립에 관하여

우리는 재외 동포의 편의 제공과 정체성 확립, 그리고 차세대 교육의 전당을 위하여 재외동포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동포센터 건립 기금 모금에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



달라스 카운티의 Bob Driegert 공화당 의장이 연설하는 모습



통일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회의하는 모습



회의 후 기념촬영 모습